

원희룡 장관, 택시난 대책 시행을 위한 택시업계 당부·논의

- 적극적 심야 운행 확대 및 공정한 플랫폼 택시시장 형성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(월) 전국법인·개인택시연합회 회장, 서울법인·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하였고,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*되고,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”고 알리면서, “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- * (잠정 출시일정) 10월 4주차 반반택시 / 11월 1주차 타다, 티머니, 카카오
 - 특히, “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,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,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,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한편, 원 장관은 “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,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,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,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앞으로도,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,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해나갈 계획이다.

2022. 10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